

정년소회

지난 40여년의 경제학 인생을 회고하며



김완진 교수

약관 18세 어린 시절 꿈을 안고 1972년 상과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한 이래 지금까지 군 생활과 유학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교정을 지키며 경제학을 공부한 지 벌써 40여년이 지나 이제 교정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와 대학이 상전벽해와 같이 크게 변화했지만 정작 저 자신은 아직도 젊은 시절의 마음에서 별로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자신은 제자리에 있는데 주위 환경이 어지러울 만큼 빨리 달려가고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사실 어떤 인간도 고립되어서 존재할 수는 없고 선배 교수님들과 동료 그리고 후학들의 영향 속에서 인격과 사상과 지성이 형성되는 것이라 한다면, 경제학,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라는 환경 속에서 지금의 저 자신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학부라는 특별한 공동체에 소속된 일원이라는 사실이 무한히 감사할 뿐 아니라, 훌륭하신 원로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었던 것과 또한 최고의 인재들인 동료와 후학들로부터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진정으로 행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이렇게 뒤늦게 와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후회스러울 따름입니다.

제가 학부에 다니던 1970년대 초반 경제개발이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현실과 엄혹한 군사독재 체제하에서 많은 학생들이 마르크스의 이론에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학부시절 한때 마르크스 경제학과 사회이론에 심취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주류 경제학에 등을 돌리고 공부를 게을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의 경제와 정치현실에서 역사는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의 투쟁의 장이며 자본주의는 자기모순에 의해 붕괴될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분석이 저의 소견에는 타당해 보였고 변혁의 올바른 방법을 제공하

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경제학이 알프레드 마샬의 말처럼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마르크스의 경제학이야말로 사회정의의 뜨거운 열정과 날카로운 고전파 경제학 분석으로 무장한 이론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마르크스 경제학의 핵심이론인 노동가치론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점차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르크스는 시장경제의 분업 속에서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지만 자본가는 단지 자본을 소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이윤을 얻기 때문에 자본가의 이윤은 노동자의 노동의 결과를 착취하는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의 생산성을 크게 제고한다고 할 때 자발적인 거래에 의해 아이디어의 소유자가 일정한 몫을 분배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착취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경제성장은 새로운 혁신에 따른 생산성 증대에 의한 것인데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그러한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할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생각의 전환이 제게는 주류경제학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경제학의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직접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수많은 선배 교수님들의 가르침이 알게 모르게 저의 이 변화를 가져온 것임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1989년에 처음 부임한 이래 정확히 30년간 경제학을 가르쳐온 지금에야 깨닫는 것은 실제로는 강의실에서 제가 가르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후배들에게서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뛰어난 학생들의 질문이나 반응이 제게는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보게 하였으며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교감을 갖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좋은 학문공동체가 있어야 좋은 학자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구성원 여러분께 그 동안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마르크스 경제학을 떠나 주류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냉철한 지성과 함께 뜨거운 가슴을 간직한 경제학자로 남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사회가 무엇인가? 바람직한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라는 이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상주의자이면서도 현실에 굳게 뿌리를 두고 실제로 실현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현실주의자가 좋은 경제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교정을 떠나면서 현실적인 냉철한 판단보다는 좀 더 이상을 추구하는 사치를 누려 볼까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교수수상 및 동정

이현재 명예교수, 유일한상 수상



이현재 명예교수가 2019년 1월 15일에 유일한상을 수상하였다. 유일한상은 유한양행 창업자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 1995년에 제정된 상으로 2년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거둔 인물을 추천 받아 심사위원회가 선정한다. 이현재 명예교수는 13번째 수상자로서 유일한상 심사위원회는 “경제학자로서 폭넓고 깊이 있게 학문적 온축을 다해온 것은 물론, 교육자로서 사회 각계에 출중한 인재를 양성해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현재 명예교수는 서울대 총장, 20대 국무총리와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한민국의학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소영 교수, 한국경제학회 학술상 수상



김소영 교수가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19.2.14-15)에서 한국경제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김소영 교수는 '거시정책과 통화정책의 영향' 논문을 금융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2018년 50권 5호에 게재했다. 한국경제학회는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한 경제학 연구의 학문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한국경제에 대한 경제학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이 상을 제정하였다. 시상 분야는 미시와 거시 분야로 나뉘며 매년 시상이 이루어진다.

홍재화 교수, 2019 청람상 수상



홍재화 교수가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19.2.14-15)에서 2019 청람상을 수상하였다. 청람상은 탁월한 연구 실적을 보여준 45세 미만 젊은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홍재화 교수는 거시 노동 분야에서 선구적인 연구 업적을 쌓고 있는 연구자로서 이질적 가계로 구성된 경제에서 불확실성이 소비, 자본 축적, 노동 공급 등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 균형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규명하는 것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그리고 노동시장과 거시경제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연구한 점이 수상 배경으로 꼽혔다.

김완진 교수 정년퇴임



경제학부에서 지난 30년 간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힘써 왔던 김완진 교수가 2019년 8월에 정년 퇴임한다. 김완진 교수는 1988년 버클리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9년에 서울대로 부임하였다. 김완진 교수는 미시경제학 전공자로 학부와 대학원에서 미시경제이론, 경제수학 등을 강의하며 후학양성에 힘써왔다.

이인호 교수, 한국경제학회 제50대 학회장 선임



이인호 교수가 2019년 6월 5일에 한국경제학회 제50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내년 2월 정기총회 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며, 임기는 1년이다.

홍기현 교수, 서울대 교육부총장 및 대학원장 겸보



홍기현 교수가 2019년 2월부터 향후 2년간 교육부총장 및 대학원장을 겸보한다. 홍기현 교수는 경제학부 학부장과 사회대 학장을 역임한 바 있다.

서명환 교수, 최승주 교수 경제학부 부학부장 겸보



서명환 교수



최승주 교수

지난 2년간 교무부학부장과 학생부학부장을 역임했던 이정민, 홍석철 교수에 이어, 2019년 9월 1일부터 향후 2년간 서명환, 최승주 교수가 각각 교무부학부장과 학생부학부장을 겸보한다.

교수 신규 임용



조영준 교수



오쿠이 료(Okui, Ryo) 교수

조영준 교수와 오쿠이 료 교수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경제학부에 새로 부임하였다. 조영준 교수는 한국경제사 전공으로 2008년에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조교수, 부교수를 지냈다. 오쿠이 료 교수는 미시계량경제학 전공으로 2005년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홍콩과기대 조교수, 교토대 부교수, NYU 상하이대 부교수를 지냈다.

경제학부 행사

2019학년도 경제학부 신입생 학부모 간담회 개최



2019학년도 경제학부 신입생 학부모 초청간담회가 2019년 4월 16일에 서울대 호암 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 150여 명과 경제학부 교수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대일 학부장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제학부의 역사, 장학금 제도, 졸업 규정, 해외 대학 방문 프로그램, 학부 동아리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간담회 중간에 정운찬 명예교수의 학부모를 위한 특강이 있었다. 그는 특히 지·덕·체(智·德·體)가 아닌 체·덕·지(體·德·智)를 언급하며 체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사람에 대한 자애로움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지식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방향으로 신입생들이 커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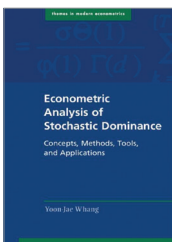
경제학부, 매경미디어 그룹과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MOU체결



2019년 5월 20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경제연구소, 매경미디어 그룹이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혁신발전 모델을 창출하는 데 서로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행사에는 장대환 매경미디어 그룹 회장(앞줄 왼쪽 여섯째)과 김대일 경제학부 부장(일곱째), 황운재 경제연구소장(다섯째) 등 경제학부 교수 20여 명과 매경 주요 임원·데스크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장대환 회장은 "매경 미디어그룹을 통한 학계의 좋은 의견 개진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대일 경제학부장은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나아갈 길을 제시하겠다"고 화답했다.

교수 신간 안내

Econometric Analysis of Stochastic Dominance



황운재 지음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년 1월 출간)

이 책은 저자가 2011년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로 선정되어 집필한 연구 성과로서 확률적 지배관계 및 확장된 여러 개념들을 소개하고 이들에 대한 통계적 추론법을 통합적인 분석틀을 이용하여 제시한다. 확률적 지배관계는 다수의 선택가능성들의 위계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후생경제학, 재무경제학, 노동경제학, 산업조직론, 국제경제학, 보건경제학 등 경제학 분야뿐만 아니라 보험학, 심리학, 의학 및 통계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론적으로 활용되고 실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디지털 사회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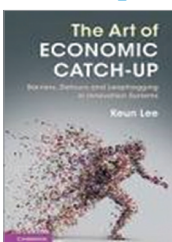


이근 외 지음

21세기북스 (2019년 7월 출간)

이 책은 세계화 4.0 시대의 디지털 기술에 의한 정치·사회 구조와 산업 경제의 변화를 조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 사회의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를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세계화 4.0 시대를 살아갈 새로운 한국사회의 모습을 '분권화된 인간 중심의 디지털 사회'로 설정하고, 미래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디지털 사회의 비전을 정치·기업·노동·금융·교육·헬스·도시의 7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리고 주요 영역별로 하위 비전을 상정해 이를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해나갈 것인가를 기술한다.

The art of Economic Catchup: Barriers, Detours and Leapfrogging in Innovation Systems



이근 지음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년 5월 출간)

이 책에서 저자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을 따라 잡을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도약 (leapfrogging)'을 제안한다. 또한 기술적인 서술이 아닌 통찰력 있고 독창적인 우회를 이용하여 발전과정에 대한 정책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리고 선진국을 끊임없이 따라가더라도 결정적으로 그들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역설을 제기하고 선진국들과는 다른 경로를 추구해야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쉽게 읽는 서울史: 조선편1



조영준 외 지음

서울역사편찬원 (2019년 6월)

이 책은 서울역사편찬원이 서울의 각 시대별로 흥미 있는 주제를 쉬운 문장과 짧은 분량의 글로 시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발간을 시작한 시리즈 도서 중 하나이다. 특히 조선편의 경우 조선시대의 서울과 관련된 경제생활, 공인과 공물 제도, 과거 시험, 주택난과 해결책 등 흥미로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신임 조영준 교수 인사말



조영준 교수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일자로 경제학부에 새로 부임한 조영준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94년에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현재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대학교에서 보냈습니다만, 이렇게 전임교원 신분으로서 새롭게 일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수많은 연구자가 외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 저는 한국에 남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국내 우수 아카이브즈에서 역사 자료를 마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의 연구 분야가 한국경제사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시대를 비롯한 전근대시기에 관심을 쏟아왔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사는 현재가 아닌 과거의 경제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이론경제학, 응용경제학이나 경제정책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방법론의 측면에서, 다른 연구 분야에서는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것과 달리, 한국경제사 연구는 자료의 조사, 수집, 정리, 가공 등의 일련의 과정이 모두 직접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먼지 묻은 고문서를 들춰가며 촬영이나 복사를 하는 데에 많은 공력을 들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해, “dirty work”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주로 연구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조선 후기 왕실을 비롯한 국가 재정에 관한 것입니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회계장부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재정의 수입 경로와 내용을 밝히고, 지출 내역과 구성을 복원하고자 하였습니다. 18-19세기에 걸쳐 국가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가는 상황에서 왕실의 대응이 현상 유지적이면서도 경직적이었다는 점, 씹씹이를 줄이지 않고서 그 부담을 조달 담당자나 상인에게 전가하고 있었다는 점, 그러한 결과가 결국은 근대적 상업 자본의 출현을 어렵게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추론하였습니다.

둘째는 상인의 조직과 기록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조선 후기 서울의 대표적 상인 조직에 해당하는 시전이 남긴 기록을 통해 상인층의 동향과 조직 원리 등을 탐구하였습니다. 시전은 독점적 물자 조달이라는 특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규정된 것 이상으로 국가에 대한 부역에 동원되어야 했고, 왕실이나 권세가 또는 군문의 폭력까지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잡곡전(팔), 포전(삼배), 면주전(비단) 등의 사례 연구를 통해 외상 거래의 구체적 실상, 인적 구성의 원리 등을 구명하고, 조달 과정의 복원과 유형 확인 등을 할 수 있었는데, 멤버십 관리와 인센티브 시스템 작동의 측면에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 상인 조직으로서 보부상이 남긴 문서를 정리하고, 구성원에 대해 다면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보부상의 기록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상거래에 관한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조직의 규정과 인원 명단 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몇 개 고을을 포괄하는 정도의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분석한

지역은 주로 충청남도에 속하는데, 근대 전환기 농촌의 경제 발전이 상인 층과는 무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보부상의 조직은 동업자 단체로서의 모습보다는 지역 공동체로서 상호부조적 기능에 충실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셋째는 장기적 관점에서 생활수준의 변화 추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인당 GDP 추계치가 확보되지 않는 전근대시기에 있어서는, 그 대리변수로서 신장(키)이 생활수준의 척도가 되곤 합니다. 저발전 단계에서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영양 섭취가 양호해지면 평균 신장이 상승 추세로 돌아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자료 중에서는 군인의 병적 기록, 도망간 노비의 추쇄 기록, 살인사건 현장의 검시 기록 등에서 신장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임진왜란 시기부터 19세기까지의 어느 구간에서도 평균 신장의 상승 추세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19세기 중엽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반등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는 개항으로 인한 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과 관련한 것으로서, 향후 심화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주제를 비롯하여 새로운 연구를 앞으로 다양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사 연구가 나아가야 할 큰 흐름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경제사 분야에서 한국경제사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아시아 학회를 비롯한 대규모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보면, 중국학이나 일본학에 비하여 한국학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경제사 분야의 소외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사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수량경제사의 분석 방법론을 현재보다 더 폭넓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부터 전근대 시기의 주요 경제 변수에 대한 자료를 대량으로 확보하여 계량경제학 기법을 적용하는 방식의 분석이 이루어져왔는데, 앞으로 그 가능성을 더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의 수치와 시계열을 충실히 정비하게 되면,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 비교사적 접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는 한국경제사 분석에 경제 이론을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사의 연구 결과가 경제 이론이나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경제 이론의 도입을 통해 한국경제사 연구를 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서구 경제사학계에서는 1천 년 전의 상인 조직에 대한 분석을 위해 게임이론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접근을 위해 이론경제학이나 응용경제학 연구자와의 협업을 활성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선별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하는 것입니다. 전근대시기를 예로 들자면, 한국 고문서학이 점차 성숙되고 자료의 집적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면서, 넘치는 자료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연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경제사 자료는 일반적인 고문헌과 달리 수치와 단위를 중심으로 하여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지며, 각종 용어가 전문적인 용례로 사용될 뿐 아니라, 깨끗하고 정돈된 형태보다는 급하게 흘려 쓴 형태가 다수를 점한다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잘 훈련된 연구 인력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현상은 국내외적으로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다양

(05면에서 계속됩니다.)

신임 오쿠이 료 교수 인사말



오쿠이 료 교수

I joined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February 2019. Before coming to Seoul, I worked in Hong Kong, Japan, and mainland China. I also visited Netherland more than a year and taught there too. I got my Ph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 thus experienced six different life environments and university systems.

My life is characterized by events I did not predict. I did not imagine that I would work in Korea. Indeed, it was beyond my imagination that I would work in so many different countries. When I was a child, I did not recognize a possibility of living outside Japan. I noticed it only after I entered the graduate program at Kyoto University. There I was introduced to an opportunity of studying in the US. I applied PhD programs in the US and admitted to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It was the beginning of my roaming life. Perhaps, nowadays, it is not unusual to look for a better job opportunity all over the world. It is an era of globalization and I may be just living modernly. Nonetheless, I sometimes have a touchy feeling that my current life is something I could not imagine when I was young. But of course, the world has experienced a lot of many unforeseeable changes since I was born. When I was a child, it was ver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imagine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and also a remarkabl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We live in such a rapidly changing world, and my life may not

be an exception. Good news is that we have a lot of opportunities which did not exist before and will have more in the future.

I did not imagine that I become an economist either until my high-school age. When I was a child, I liked history and wanted to be a historian. I was even unaware of the existence of an academic discipline called economics. When I was a second year high-school student, I read a book which changed my mind and I decided to study economics at university. It was a book about Tang Dynasty in China written by MIYAZAKI Ichisada (it seems that he is also known in Korea; his Korean Wikipedia page exists). Toward the end of the book, he illust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cycle and political instability in Chinese history. He claimed the importance of economic situations to understand historical events. This may be a natural claim to many of readers, but it was an astonishing idea to a naïve high school boy like me. Until then, I had considered history as something romantic which consists of love and hatred among heroes. In other words, history was a more realistic version of hero novels to me. The cold and materialistic view toward history pointed out in that book was a surprise yet extremely attractive. It made me study economics. I am confident that I made a right decision and am happy to be an economist now.

While I did not know even the existence of economics, I wanted to be in academia even in my childhood. I have liked studying since my childhood, and studying was the only thing I was good at. I did not know academic life because no one in my family nor someone close to my family was in academia. Nonetheless, I knew the existence of academic jobs and I

(06면에서 계속됩니다.)

(04면에서 이어집니다.)

한 자료의 컬러 이미지와 원문 텍스트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아이디어와 방법론을 갖춘 연구자라면 누구에게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dirty work”의 강도가 약해짐에 따라 한국경제사 연구에의 진입 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 수준에서의 교육 기회 확대와 연구 성과의 대중화 작업이 병행된다면, 한국경제사 연구자의 인력 풀이 현재보다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발전적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경제사라는 연구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내실 있는 성과를 산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후배, 동료, 그리고 학생들, 나아가 경제학 전공이

아닌 유관 연구자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교류하는 자세를 가지고자 합니다. 한국경제사 연구의 심화가 경제학부의 발전뿐 아니라 한국 사회과학 연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학력 및 주요 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석사, 박사 (2001, 2004, 2008)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후연구원 (2008–2009)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 (2009–2013)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2013–2019)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2019–현재)

(05면에서 이어집니다.)

imagined that it was a life just to devote studying, which is partly true but partly wrong too. I realized my dream and have been doing research and teaching as my job. My academic life is a bit different from what I imagined. Still, I enjoyed my academic life and am satisfied that I chose this occupation.

I like economics because of its way of doing research and also its way of viewing humans and societies. Economics tries to develop its theory from the very fundamental. The first part of microeconomics is the axiomatic characterization of preference. Econometrics starts from probability theory. Because we start with the fundamental, we know what we are talking about. This aspect of economics fits my preference. When I started learning statistics and econometrics, I could not take it granted that econometrics procedures have nice properties and we can use them. I wanted to understand the basics and the fundamental. While my interest in economics is originated from Chinese history, I ended up with being a theoretical econometrician. A nice thing about economics is that it can host people who do fundamental stuffs.

Economics is based on a way of thinking which is very distinct from other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even when we consider similar social and human issues. In economics, we typically assume that people maximize utility. I know that many people do not like this assumption and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criticisms. Some say that it is unrealistic. Others say that it is too materialistic, and people should and would care other things. However, this way of thinking is very attractive to me. In economics, we just say that everyone maximizes utility. It really does not matter whether we are Asian or western, male or female. We are just all utility maximizers. Although we face different budget constraints and preferences may be different, economists assume that this principle of utility maximization holds for everybody. There is no other discipline in social science or humanities which takes such a view that essentially set aside our ethnical and racial background. In those disciplines, who we are is very important.

The other unrealistic assumption which economics has employed, and which I really like, is that people are rational. As in the case of utility maximization, I know that many people do not like this assumption and criticize it. This assumption would be the one of most commonly used criticisms against economics. However, this is one of the assumptions which makes me love economics. We assume that people are rational. We make this assumption to analyze an economic phenomenon in the US. We also make this assumption to

analyze behaviors of Japanese, Korean, Chinese etc. We (assume that we) are all rational! In other words, economists think that we are all very smart! It is amazing how deeply economists respect people's ability. Economists regard people rational (or smart) even when they are from disadvantageous background in poorly functioning countries. This is a unique feature of economics. Of course, we need to make economics realistic in order for it to be useful. Behavioral economics becomes a popular field in economics. Nonetheless, rationality would be a good starting point and even in behavioral economics, rationality is always used as the benchmark and behavioral bias is defined to be a deviation from rationality. I also want to mention that there are many useful insights we have obtained from argument based on rationality.

Lastly, I like economics because it provides me with stable jobs. Fortunately, there exist a great amount of demands for economic and econometric knowledge all over the world. The job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my third tenured job. It is a privilege that I can experience different tenured jobs. I could have such a privilege because economics and econometrics are valued in many societies and I know them. I do not have anything which makes me proudly display who I am. However, I can be useful and hiring me can be profitable because I can teach econometrics and write econometric research papers. I know it sounds too materialistic. But it is a relief for me. As long as I do economics and econometrics, I can earn living and can be useful to the society regardless of who I am. Economics is so powerful.

It has been six months since I joined Seoul National University. My life here has been pretty good. The university provides a working environment without much disruption and I enjoy doing research and teaching here. Students are incredibly good. I knew it well before coming here, still experiencing it is a joyful eye-opener. Seoul is a convenient city and I enjoy it. It was a mild surprise that kimchi appears extremely frequently whenever I dine. Honestly speaking, eating kimchi 21 times per week is too much for me, although I am fine with eating kimchi 14 times per week. I look forward to more work and life experiences here and enjoying them.

〈ACADEMIC AND PROFESSIONAL CAREER〉

- Ph.D. in Economics,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05)
- Assistant Professor of Economics,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05–2009)
- Associate Professor of Economics, Kyoto University (2009–2017)
- Associate Professor of Economics, NYU Shanghai (2017–2019)
- Associate Professor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9–Present)

미워하지 말아요!



천영준 (학부 15학번)

처음 여러분이 대학교 합격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지금 돌아보면 참 재밌지만, 당시에 저는 결과를 확인하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울며 밖에 계시던 어머니,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 모두 모여서는 온 가족이 부둥켜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합격하고 입학 때까지는, 정말 똑똑한 친구들과 사이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평생 살던 집에서 벗어나 혼자 서울에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잠깐씩 드는 걱정을 제외하고는 합격의 기쁨과 다가올 대학 생활에 대한 설렘 등만으

로 제 감정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입학하고 나서도 가끔 가족 생각, 집 생각이 많이 날 때가 있긴 했지만,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이제껏 열심히 공부했던 것에 대해 스스로 포상이라도 주듯 신나게 놀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부담은 뒤로 미뤄놓고 지냈습니다.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기분으로 당시를 즐겼던 동기들, 그리고 친구들끼리는, 모이기만 하면 항상 술 게임을 하거나 연애, 새로운 인간관계 등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 없는, 행복한 생활은 새내기 생활이 끝나고, 제가 군에 입대하게 될 때쯤에서는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 매우 단순한 질문이지만 입학하고 잠깐 잊고 살았던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기 시작한 친구들을 보며 달라진 분위기를 처음으로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휴가를 나와 친구들을 오랜만에 직접 만났을 때 나누던 대화의 분위기 역시도 시시콜콜한 주제가 주를 이루던 이전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입대할 때, 복학하고 똑같이 즐겁게만 맞이할 줄 알았던 대학 생활은 실제로 복학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느덧 끝나가 있었고,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동기들, 선후배들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만나서 밥을 먹을 때 항상 나오게 되는 질문은 ‘요즘 뭐 준비하면서 살아?’, ‘어떤 진로를 생각하고 있어?’가 대부분이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마지막 대화의 마무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부담에서 나오는 한숨으로 마무리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덧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을 쓰는 저는 그래도 새내기 생활 때는 이런 부담감이나 걱정 등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살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 우연히 만나게 되는 새내기들과 이야기해보면 대부분 벌써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한 아름 안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또, 미래에 대해 확실한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지내는 학생들은 마치 자신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 자체는, 물론 대부분 대학생에게 해당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런 걱정과 부담을 유독 우리 경제학부 학우들이 크게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걱정과 부담으로 자신에게 가혹한 채찍질을 하고, 그에 기인한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모습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의 많은 선후배와 동기들끼리 진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로스쿨, 금융계 공기업, 고시, 전문직 자격증, 기업체 등의 진로로 크게 나누어지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런 진로로 나아가기 위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 노력의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염려하며, 자신이 목표하던 진로에서 꼭 성취를 이루겠노라 매일 다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던 진로에서 벗어나 다른 진로로 가는 것을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스스로 채찍질하는 듯합

니다. 그런 부담감 아래에서 실 때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보다 ‘해야 할’ 일들에 우선순위를 두어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의 행복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고통받고, 아파합니다.

사실, 물론 선부른 판단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학우들은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주위에서 공부를 비롯해 다른 모두에게 뛰어났다 칭찬과 인정을 받았을, 그래서 자신감이 가득했을 학생들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총명하고 열정 넘치는, 멋진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리고 여전히, 충분히 멋진 사람들일 텐데 왜 우리는 어느덧 본인에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왜 잘하는 것이 없을까’라는 한탄을 늘어놓는 것일까요?

물론, 이는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현실이 바탕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속된 말로 ‘대학 4년 내내 걱정 없이 놀고서도 직장을 골라 갔다’라던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고 할 정도로 취직에 대한 걱정이 없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계속되는 불황 및 그로부터 야기된 전반적인 사회의 고용 불안정성의 증가가 심화하여 상황은 크게 달라졌고, 이제는 ‘대학 4년 내내 취업을 위해 노력해도 취업하기 힘들다’라는 말이 사회에 만연할 만큼 여러모로 힘들고, 여유를 찾기는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겪는 걱정과 부담은 이런 외부의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인한 부분이 클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입학하자마자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스스로 다그치지 않으면 자리를 잡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옥죄게 합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자’라는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말일 것입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저 역시 매일 미래를 위해 준비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걱정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런데도 제가, 멋진 학우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자신을 미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3년 가까이 학교에 다니면서 학문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지만, 제게 가장 큰 배움이자 자극제가 되었던 것은 우리 학우들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학문적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고, 나아가 열정을 빛내며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제 눈에는 정말 멋있게 보였고, 그들을 바라보며 저 또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다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멋있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면서는 자신을 미워하고, 바닥으로 떨어진 자존감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낮은 학점을 받았을 때도, 준비하는 일이 생각만큼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그 모든 이유를 ‘자신의 부족함’으로 돌리고 본인을 미워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결코 당신은 그렇게 못한 사람이 아니라고,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잘될 수는 없을 것이고, 자신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 역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그에 굴하지 않고 극복해 가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 안 된다고 생각될 때도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은 무언가를 이룬 것이 없는, 가야 할 길이 많은 학부생 신분엔 불과하기에, 스스로에 대한 미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계속 미워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진다는 것을 알기에, 그럴 때마다 ‘나’ 자신에게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한 번 더 믿으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게 될 학우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잘해왔을 스스로에 대해 미움 대신 ‘믿음’을 한 번 더 주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멋진 사람들이고, 잘하고 있으니까요!

LES (법경제학연구학회)

글: 김호중 (LES 회장, 학부 17학번)

1. 동아리 및 지도교수님 소개

○ 동아리 소개

LES(Law & Economics Society)는 서울대 유일의 경쟁법 연구학회로 2005년에 창설되어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학회입니다. LES는 법학과 경제학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심결례와 판례를 분석하며 법적·경제적 현실감각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LES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공정위 소관의 법률들(하도급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공부하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공정위에서 개최하는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 지도교수님 소개



LES의 지도교수님은 이상승 교수님입니다. 산업조직론 분야의 전문가이신 교수님은 수년째 LES를 지도해주시며 반독점에 관련된 여러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주목을 받았던 독일 경쟁당국의 기업규제 사례를 소개해주기도 하였고, 학회 발표회에 참석해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을 날카롭게 짚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전문적 측면에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학회원들과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학회원들이 학회 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을 얘기하면 교수님은 바쁘신 와중에도 자상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이렇듯 학회원들과 교수님 사이의 친밀한 유대관계는 LES가 자랑하는 장점 중 하나입니다.

2. 동아리 활동

○ 정기 세미나

겨울학기부터 1학기까지 경쟁법과 관련 심결례를 공부하는 정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세미나는 보통 2주일에 한 번씩 3시간 가량 진행되는데, 각종 시험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세미나에서는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 '현대-기아차 기업결합 사건'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관련된 경쟁당국의 규제사례들을 다루며 관련 법령, 경제이론, 해외 판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조별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 다

른 학회원들은 발표를 듣고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며 활발히 토론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세미나에서 공부한 내용들은 이후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참가

1학기 말부터 여름학기동안에는 LES 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는 참가학생들이 직접 공정위측 또는 기업측에서 서서 공정거래 관련사건에 대해 가상으로 논박을 펼치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회입니다.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저희는 국내외 주요 심결례들을 깊이 분석하고,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공정거래 관련이슈를 탐색합니다. 이렇게 탐색된 사례와 이슈들 중에서 현실성과 시의성이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각색과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성과 참신성을 가진 저희만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 행위사실과 심결과정을 보여주는 UCC를 제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공정위 심판정에 가서 심결과정을 시연하고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에 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대회는 그동안 습득한 경쟁법 관련 지식을 능동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로, 높은 난이도만큼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 학술동아리의 A to Z를 느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시절의 잊지 못할 추억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 학술제 및 고전강독

2학기부터는 학술제와 고전강독을 진행합니다. 학술제를 위해 경쟁법과 관련된 여러 보도자료와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을만한 사례나 이론들을 탐색한 뒤 이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논문을 작성합니다. 다양한 실증분석과 심층연구를 통해 저희가 만족할 수 있는, 즉 국내 경제법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수준의 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후 연세대, 이화여대, 숭실대 등 타대학의 경쟁법 학회와 함께 연합학술제를 개최합니다. 각자 준비한 논문에 대한 발표를 들은 뒤 토론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연합학술지를 발간하게 됩니다.

고전강독 시간에는 경쟁법과 관련된 여러 해외논문들을 읽게 됩니다. 교수님과 조교님의 도움을 받아 경쟁법과 관련된 기초적인 논의부터 새로운 논의까지 다양한 법학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전강독을 통해 앞으로 법학 관련 해외논문을 읽을 때 느낄 수 있는 생경함과 두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타행사



LES에서는 위의 학술행사들 말고도 학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가장 특징적인 행사로는 교수님과 산행을 꿈꿀 수 있는데, 봄철에 교수님과 함께 관악산을 오른 뒤 회식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파른 산길에서 학회원들끼리 서로 손잡아주며 웬지 모를 전우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역대 LES 멤버들을 초대하여 파티를 여는 홈커밍데이 행사도 진행합니다. 로스쿨부터 법조계, 금융계, 공직에 이르기까지 각종 분야에 몸담고 계시는 선배님들과 교류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값진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틈틈이 MT를 통해 LES의 소속감과 연대 의식을 더욱 고취시키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3. 글을 마치며

LES는 노력한 만큼 많은 것을 돌려주는 학회입니다. LES 학회원들은 경쟁법을 공부하며 건전한 경제감각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꿈을 향한 길에 힘이 되어줄 선배와 친구들을 얻게 됩니다. LES에서는 전공, 나이를 불문하고 1년 동안 성실하게 학회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과 경제에 대해 관심과 열정을 가진 학생이라면 누구라도 지원 가능하고, 경연에 도움이 되는 특기를 보유한 학생(파워포인트, 영상 촬영 및 편집 등)들은 우대하고 있습니다. 학회지원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club.cyworld.com/lesrecruitin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고민, 저희와 함께하세요!!

BK21플러스 사업단 소식

우리 경제학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석·박사 급 창의인재 양성 (BRAIN KOREA 21 PLUS)의 인문사회분야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경제전문가 양성 교육연구 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2013년9월~2015년8월, 2016년3월~2018년2월)의 중간평가 결과 사회과학분야(경제/경영, 전국단위) 최우수 사업단으로 평가 받았다.

2019년도 상반기 학술활동

BK21플러스사업단은 2019년도 상반기에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 ▶ BK21플러스/김태성기념세미나 16회
- ▶ BK21플러스/IER Public Seminar 5회
- ▶ BK21 플러스 H-Trio 워크숍 11회
- ▶ BK21플러스 Brown Bag lunch 세미나 4회
- ▶ BK21플러스 특별강연/공동주관 학술행사 2회
- ▶ 응용계량경제학 워크숍 5회
- ▶ 인구경제세미나 3회
- ▶ 국제학술대회참가경비지원 10회

BK21플러스/김태성 기념세미나

Jason Shachat (Durham University Business School)

Measuring Tastes for Equity and Aggregate Wealth behind the Veil of Ignorance

Yongcehol Shin (The University of York)

The Spatio-Temporal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ling Approach to an Analysis of Spatial Heterogeneity and Diffusion Dependence

Giulio Seccia (Nazarbayev University)

The Role of Trade Credit and Bankruptcy in Business Fluctuations

Yukihiko Funaki (Waseda University)

Relationally Equal Treatment of Equals and Affine Combinations of Values

Andrea Weber (Central European University)

Job Displacement, Family Dynamics, and Spousal Labor Supply

Galina Zudenkova (University of Mannhei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Protests, and Censorship

William S. Zwicker (Union College, Department of Mathematics)

Fair Division of a Graph: Envy-freeness up to One Good, or Two

Amir Lebdioui (University of Cambridge)

Export Diversification of Natural Resource-dependent Economies

Ning Yu (Nanjing Audit University)

The Substitutes Condition and Public Policy

Jingtao Li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Robustly Optimal Reserve Price

Tilman Borgers (University of Michigan)

Strategically Simple Mechanisms

Hagen Kim (Texas A&M University)

Do Animal Spirits Matter? CEO Optimism and Business Cycles

Kei-Mu Yi (University of Houston)

Structural Change and Deindustrialization

Pei-yu Lo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Selling to Consumers with Intransitive Indifference

Jay Hyun (Columbia University)

Spillovers of Regional Housing Market Disruptions: The Role of Product Replacements by Multi-Market Firms and Aggregate Implications

Mitsuru Igami (Yale University)

Mergers, Innovation, and Entry-Exit Dynamics

BK21플러스/IER Public Lecture Series

박지형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세계무역체제의 유지와 불완전한 사적정보의 역할 (Sustaining World Trading System with Imperfect Private Information)

서경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Arbitrage Comes Hand in Hand with the Risk of Market Crash

조영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18-19세기 농촌 금융 연구를 위한 고문서 활용의 모색 - 부안김씨 우반동 문서의 사례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The More Efficient, the More Vulnerable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Examining Macropredential Policy and its Macroeconomic Effects - Some New Evidence

BK21플러스 H-Trio 워크숍

허정 (서강대학교)

Product Dynamics and Trade Liberalization: Evidence from the Korea-US FTA

강주성 (오른대 한국순교자박물관)

한말 식민지기 동래군 기장 미동 남평 문씨 가문의 대부 행위와 그 내용

유근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이정호, 김지환, 손종민, 오수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Proseminars in Applied Microeconomics

장광남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김기성, 박종형, 강민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Proseminars in Applied Microeconomics

Andrea Weber (Central European University)

Job Displacement, Family Dynamics, and Spousal Labor Supply

이수련 (KDI)

Labor Market Screening and Social Insurance Program Design for the Disabled

이재준 (KDI)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대응방향

박윤수 (KDI)

대학규제와 사고욕

한유진 (연세대학교)

Subsidizing Elderly Care: Evidence from the Long-term Care Insurance

Tzu-Ting Yang (Academia Sinica) & Po-Chun Huang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Learning from Taiwan Workshop

황지수 (한국외국어대학교)

The Effect of Unexpected Longevity on Intergenerational Policies and Fertility

BK21플러스 Brown Bag Lunch Seminar

권혁욱 (Nihon University)

기업, 사업소 자료를 이용한 생산성 분석의 응용사례

민규량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이 엄마의 시간이용에 미치는 영향

이종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Measuring Geopolitical Risk from North Korea and its Impact on South Korean Stock Market

김혜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The Wage and Employment Effect of Immigration: Evidence from Korea

BK21플러스 특별강연 & 공동주관 학술행사

이용석 (Starnford University)

Robots and Jobs: More Evidence from US Labor Market

분배정의센터 공동 주관 강연

Ben Fine (University of Lond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Economics and Interdisciplinary: One Step Forward, N Steps Back?

응용계량경제학 워크숍

김국동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Don't Drink Sugar: A Field Experiment

안지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의무휴업일제도가 소매업태에 미친 효과 분석

민규량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보육시설 이용이 영유아모의 시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 집단의 이질성을 중심으로

김혜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The Wage Effect of Immigration: Evidence from Korea

유근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Air Pollution, Information, and Hospital Visit: Evidence from Korea

인구경제세미나

강민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The Effect of Commuting Time on Self-Perceived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김혜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The Immigrant Wage Gap and Assimilation in Korea

유근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Air Pollution, Information and Hospital Visit: Evidence from Korea

(10면에서 계속됩니다.)

장 학 금

장학금 수혜 현황

2019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을 통해 경제학부 학부생 316명, 대학원생 82명이 수혜를 받았다. 기타 교외장학금을 통해서도 학부생 440명, 대학원생 24명이 수혜를 받았다.

2019학년도 향상장학금 수여식

상대향상 재단을 통해 30명의 학부생이 장학금을 전달받았으며, 2019년 2월 27일 프레젠테이션에서 27명의 장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향상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교무 및 학생활동

제73회 전기 학위수여식

서울대학교 제73회 전기 학위수여식이 2월 26일(화) 14시에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경제학부는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박사 5명, 석사 21명, 학사 135명(최우등 48명, 우등 51명, 최우수 1명, 총동창회장상 1명)을 배출하였다.

2019학년도 경제학부 대학원 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9년도 대학원 후기모집을 실시했다. 이번 후기모집에서는 박사과정 대학원생만을 모집하였고, 석사과정에서의 연구 성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바탕으로 서류평가와 면접 및 구술고사를 통해 총 10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2019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2019년도 하계 계절학기가 6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되었다. 경제학부는 학생들의 하계계절학기 개설희망교과목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학개론', '경제원론1, 2',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사', '경제통계학', '정치경제학입문', '경제수학', '계량경제학', '중국경제론'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국제화 추진 현황

2019년도 1학기 영어강의개설목록

담당교수	교과목명
이 근	Economics of Catch-up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이철민	Studies in Public Economic Policies
박지형	International Trade Studies in International Trade
이지홍	Game Theory and Its Applications
Dmitry Shapiro	Studies in Microeconomics Exercises in Economics
Gueron Yves	Microeconomics Exercises in Economics
Okui Ryo	Advanced Studies in Econometrics
Oyvind Thomassen	Mathematics for Economics Exercises in Economics

2019학년도 외국인특별전형 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9년도 후기 외국인특별전형 실시하여 서류평가를 통해 1명의 석사, 2명의 박사과정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이번 외국인특별전형은 총 16명의 외국인 학생이 지원한 가운데 몽골 국적 1명(석사), 중국 국적 2명(모두 박사)이 선발되었다.

버클리대 경제학과 방문수학 프로그램 (BESAP) 학생선발

경제학부는 2019년 3월 선발전형을 실시하여 BESAP 참가자로 6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이 중 3명의 학생은 2019년 2학기에 나머지는 2020년 1학기에 파견할 예정이다. BESAP는 미국 명문대학인 캘리포니아 버클리대(UC Berkeley)와 경제학부가 협약을 맺어, 학부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버클리대 경제학과와 정규과정에 방문 수학하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09면에서 이어집니다.)

김혜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The Wage and Employment Effect of Immigration: Evidence from Korea

오서정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Health-Risk Perception and Adopting Preventive Behaviors

김경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Heterogeneity and Efficiency in Treatment Choices

민규량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영유아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BK21플러스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신진욱, 김국동 (박사과정생)

국제학술대회 "Cherry Blossom Workshop 2019, 중국/우한" 참가 및 논문 "Nudging Customers to Drink Less Unhealthy: Field Experiment in South Korea" 발표

김진희 (박사과정생)

국제학술대회 "CISS Competition and Innovation Summer School 2019, 몬테그로/울치니" 참가 및 논문 "Measuring and Analyzing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around the World using US Patent

Data: Silicon Valley, Shenzhen, Beijing, Hong Kong, Singapore" 발표

오서정 (석사과정생)

국제학술대회 "WEAI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일본/도쿄" 참가 및 논문 "Health Risk-Perception and Adapting Preventive Behavior" 발표

김성희 (박사후연구원)

국제학술대회 "WEAI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일본/도쿄" 참가 및 논문 "The Impact of Mass Migration on West Germans' Trust in the Reunified Germany" 발표

이준영 (박사과정생)

국제학술대회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Developments in Economic Theory and Policy, 스페인/빌바오" 참가 및 논문 "Kuznets and Kaldor together in a Three-way Growth-equity Nexus: Gini Coefficient and Labor Income Share in a Single System with Economic Growth" 발표

Alexandre Philippine (박사과정생)

국제학술대회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Developments in Economic Theory and Policy, 스페인/빌바오" 참가 및 논문

"Measuring and Analyzing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s (RIS) around the World using US patent data: Silicon Valley, Shenzhen, Beijing, Hong Kong, Singapore and other small States and Regions" 발표

안재범 (박사과정생)

국제학술대회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etrics and Statistics, 대만/타이중" 참가 및 논문 "Bayesian Analysis for Heterogeneity" 발표

정단비 (석사과정생)

국제학술대회 "Summer School in Econometrics and Statistics, 중국/샤먼" 참가 및 논문 "A Test for the Implication of the Supermodular Dominance" 발표

이경호 (석사과정생)

국제학술대회 "Summer School in Econometrics and Statistics, 중국/샤먼" 참가 및 논문 "Consistent Tests for Time Stochastic Dominance" 발표

김성희 (박사후연구원)

국제학술대회 "Singapore Economic Review Conference 2019, 싱가포르" 참가 및 논문 "The Effect of Income Inequality on Trust: Evidence from Post-reunification Era Germany" 발표

● 경제학부 발전기금 출연 현황 | 2019. 1. ~ 2019. 7.

1억원 이상

(주)코바상사 (이강홍 회장)
해연윤진장학회 (오영중 대표)

5천만원 이상

이현재 (경제학부 명예교수)

1천만원 이상

서울상대 24회 일동
육심강 (경제 81)
재흥공서울대학교총동문회
(주)신한은행

5백만원 이상

강안호·박수향 (경제 96)
권태균 (경제 79)
김우진 (경제 89)

1백만원 이상

강성철 (경제 89)
강승희 (학부모)
고희창 (학부모)
권태신 (경제 68)
김명수 (경제 89)
김범준 (경제 89)
김영석 (경제 60)
김 인 (경제 89)
김재완 (경제 89)
김현중 (경제 89)
남동우 (경제 89)
박광식 (경제 89)
박인천 (경제 89)
박정우 (경제 89)
배영석 (경제 89)
성시경 (경제 89)

손병구 (경제 89)
신상섭 (경제 01)
신한식 (경제 89)
신후성·정태경 (경제 55)
안정식 (경제 89)
양승중 (경제 89)
오덕균 (경제 53)
오탁근 (경제 89)
이경태 (경제 66)
이대희 (경제 89)
이명근 (경제 89)
이병도 (경제 89)
이상우 (경제 89)
이재선 (경제 89)
이필상 (초빙교수)
정지원 (경제 81)
정흥교 (경제 70)
(주)모로코 (안익진 대표이사)

최지수 (경제 89)
하형인 (경제 89)

1백만원 미만

나영철 (경제 89)
심병직 (경제 89)
유석철 (경제 89)
장현수 (경제 04)
조해찬 (경제 89)
최진웅 (경제 97)

“오늘을 만든 헌신, 내일을 만들 후원” 모금 안내

경제학부 발전기금 홈페이지 <http://econ.snu.ac.kr/donation>

경제학부와 경제학부 발전 위원회(회장: 권오규 전 부총리)는 2018년 한 해 동안 약 270억 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석경제관 건립기금 100억 원을 기부해 주신 성기학 회장님을 비롯한 모금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목표 금액인 400억 원 달성을 위해 2019년에도 모금 활동을 지속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모금액은 아래 계획과 같이 우석경제관 및 한국경제혁신센터 건립과 연구 기금, 학생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현/내/후 모금 사용 계획

우석경제관과 한국경제혁신센터 건립	285억 원
한국경제혁신센터 설립과 운영	35억 원
연구 기금	30억 원
학생 지원	30억 원
제휴 및 융합 프로그램 운영	20억 원

경제학부는 가장 엄격한 회계기준에 따라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 집행할 것이고, 기부하신 분에 대해서는 명예의 전당에 기록으로 남겨 오래도록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부자 예우

기부 금액에 따라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서 제공하는 예우 프로그램(기념품 및 간행물 제공, 기부자 명예 헌정 및 예우, 학교시설 이용 편의, 서울대병원 진료 편의 서비스)을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우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울대 발전기금 홈페이지 <http://www.snu.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현/내/후 기부 방법

1. 온라인 신청: 경제학부 발전기금 홈페이지 <http://econ.snu.ac.kr/donation> 에서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발전기금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편한 방법으로 보내주십시오.
 - 팩스 발송: 02-875-8860
 - 사진을 찍어 이메일 발송: kang97@snu.ac.kr
 - 우편 발송: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16동 경제학부 발전위원회 사무국(206-1호)

경제학부 발전기금 담당자:
전화: 02-880-6361

경제학부 강내영 행정실장
이메일: kang97@snu.ac.kr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 안내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는 1961년도에 설립되어 59년에 이르는 전통과 역사를 지닌 연구소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및 경제·경영학 관련 전공 교수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경제연구소에서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세계경제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 경제학부와 더불어 세계 속에서의 한국경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2001년 3월부터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Advanced Strategy Program for Global Economy : ASP)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제38기) 입학생을 모집하는 본 과정은 국내 최고 수준의 교과과정과 강사진을 갖춘 산학협동과정으로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화된

디지털경제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방향 수립을 위한 지식 습득과 능력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을 수료하신 1,000명 이상의 동문들은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비롯하여, 국가전략을 결정하는 책임 있는 당국자, 금융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은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본 과정을 통하여 국가정책의 주요 의제들이 활발히 논의되는 토론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는 데 주역을 맡으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ASP의 특전

1. **과정 수료자에 대한 이수증 수여** : 6개월에 걸친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2. **동창회 조직** : 본 과정 이수자들 간의 상호교류와 학교와의 연계를 위하여 동창회를 구성하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 소속됩니다.
3. **정기간행물 및 시설 등의 이용** : 수강자들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경제논집, Seoul Journal of Economics 등)과 자료들을 증정받으며, 본 연구소의 각종 시설(도서관, 세미나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각종 세미나 및 행사 참여** : 본 과정 수강자들은 경제연구소 및 ASP총동창회가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연구소는 주례발표회(학기 중, 매주 수요일 12시), SJE 세미나 및 저명교수 초청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으며, ASP총동창회에서는 조찬세미나, 하계 해외연수 등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ASP 입학안내

- [illegible]

ASP 37기 회원명단



〈ASP 37기 해외세미나 기념사진〉

인적사항 수정이 필요한 동문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 있는 동문께서는 소식지 편집조교에게 이메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적사항 수정의 경우 새 정보로 변경하고, 알리고 싶은 소식의 경우 다음호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출판된 경제학부 소식지는 경제학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